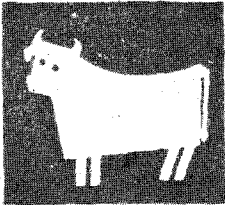


# 축산업계 동향



## 농수산부, 종계장 부화장 점검결과 발표

### — 8월 정기검사 강력히 실시할예정—

농수산부는 지난 5월 실시한 전국 종계장 부화장 점검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점검은 1차로 각시·도에서 308개 종계장과 312개 부화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농수산부가 34개 종계장과 37개 부화장을 점검하였다.

또한 농수산부는 각 시도에 점검결과와 개

선방안, 조치사항을 지시 하달하고 8월의 정기검사시에는 부적격한 종계장 부화장에 대하여 축산법에 위거 강력한 조치를 취할것과 특히 초생추 출하 및 종란반출상황 보고에 정확을 기하여 양계사육동향과 생산예정량을 사전에 예측 가격안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지시했다.

또한 농수산부는 본회에 종계사육 일지를 보급하여 정확한 기본통계가 확답될 수 있게 조치하도록 하달했다.

주요 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요 시정사항

점검항목	시정사항	조치(안)	해당기관
1. 정기 검사 (수시 점검 포함)	○정기 검사결과 처리미흡, 보완 지시에 그치고 있음.	○정기검사 철저 ○경미한 사항은 보완지시, 현격히 기준에 미달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허가(등록) 취소	각시도(군)
2. 불법 행위 단속	○미등록종계장·무허가부화장에 대하여는 철저한 단속으로 불량초생추 유통이나 과잉생산에 의한 가격하락 등을 방지 하여야 하나 소홀히 하고 있음	○법에 의한 조치 ○양계산물 과잉생산지·중점단속	각도(군)
3. 종계장, 부화장 위생 시설	○위생시설(소독관, 소각장등)을 형식적으로 설치하였으며 활용되고 있지 않음. ○주위환경이 극히 불량한 종계장이 있음	○실질적인 위생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활용토록 할 것	각사업장
4. 관계대장 정리	○종계사육 상황의 파악이 어려움 ○초생추(종란)반출입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음	○초생추(종란)반출입대장을 필히 갖추고 성실히 기록유지	각사업장

# 축산업계 동향

	○ 초생추 계통 보증서 발급업무 소홀	○ 초생추 판매시 계통보증서 발급에 철저를 기하고 발급 근거를 남길 것.	
5. 종계 검사 확인 업무	○ 검사확인 받지않은 종계에서 생산된 종란을 입란하고 있는 행위 엄금	○ 종계-종란-입란-부화-반출-판매 등의 상황이 일관성 있게 파악될 수 있도록 종계사육 일지등 보급할 것.	양계협회
6. 보고사항	○ 각농장에서 초생추 반출상황보고가 형식적이며, 보고근거가 없으며 대장확인시 대조 파악이 되지 않고 있음.	○ 각시도는 종계장의 종계입식상황을 파악할 것.	각사업장 각시도
7. 교육	○ 종계장등록, 부화장관리, 정기검사등을 시군에 위임하고 있으나 일선담당자들이 법규, 지도 감독 등의 요령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음.	○ 성실한 보고가 이행되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보고내용을 다각도로 분석해서 합리적 여부를 판단할 것	
		○ 단양식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	각시도

## 영농후계자 육성사업 실시

### - 농수산부, 축산진흥기금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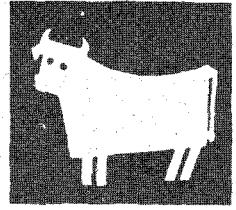
농수산부는 농촌개발을 선도할 기간적(基幹的) 영농인 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축산진흥기금을 지원 영농후계자 육성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 ○사업내용

#### ○대 상

농업계학교 축산계열졸업자로 농촌에 거주하고 축산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자.  
실제양축을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자.  
상기의 여건을 갖추고 현재 양축을 하거나, 신규로 하고자 하는 자.

지 원 대 상	대 상	지 원 규 모		사 업 주 관	재원및 용자조건
		1인당	총지원액		
농과대학 졸업자	45명	4백만원	180백만원	당해지역도지사	○재원: 축산진흥기금
대관령축산고등학교	15명	"	60 "	강원도지사	○조건: 5년(2년거
제주도내 농업계학교	5명	"	20 "	제주도지사	치 3년분 상환)
연암축산전문대학	40명	"	160 "	연암축산전문대학장	○금리: 연 12.5
충청도내 농업계학교·시범사업대상자	10명	"	40 "	충북도지사	
농촌청소년대상자	30명	"	120 "	농촌진흥청장	
계	145명	"	580 "		



## 대두가공업계

### 대두박가격 인상요구

#### — 국제콩값과 부자재비 상승으로 —

대두처리가공업계는 국제콩값이 크게 상승한데다 7. 10 유가파동으로 생산원가 압박이 심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의하면 대두박 및 콩기름의 현행 판매가격이 콩수입가 t당 2백 95달러 (C & F) 기준으로 책정한 것에 비해 현 국제 콩시세는 t당 3백 45달러 (C & F)로 오른데다 油價 59.2% · 전기료 35%가 올랐고 용기 및 포장비까지 크게 올라 제품원가가 35~40%나 상승했기 때문에 오는 8월부터 판매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대두박은 kg당 1백 39원 (부가가치세포함)에 공급되고 있는데 수입대두박 가격은 kg당 1백 63원 (관세 3.4% 포함)으로서 국제 콩값이 석유파동으로 계속 상승 추세에 있어 대두박수입가격도 더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되 앞으로 양축농가부담가중도 불가피할 것이다.

동방유량, 제일제당등 대두가공업계는 6월이전 구매확보된 원료로서는 7월말까지의 생산분에 불과해 오는 8월부터 대두박 공급가격을 현행보다 적어도 35% 인상해 줄것을 농수산부 및 경제기획원 당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 계란규격 개정작업 추진

일본의 계란규격설정검토회에서 계란의 거

래규격 개정작업이 검토되었다. 이 결정에 따르면,

- LL 70g 이상 76g 미만
- L 64~70g
- M 58~64g
- MS 52~58g
- S 46~52g
- SS 40~46g이며,

이 결정은 현행대로 LL에서 SS까지 6구분으로 하고 각규격별 중량차이도 6g으로 하였으며 각 규격의 중량을 현행보다 1g 인상하였다.

이 개정작업은 동 위원회의 결정과 1년간의 보급기간을 거쳐 1980년부터 실시된다.

## 일본농업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혁

### — 農水省 내에 전문팀 구성 —

쌀, 계란, 고기를 위시하여 생산과잉이 점점 심각한 사태로 됨에 따라 정부·農林水産省은 농업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농림수산성은 省내에 7개 연구 팀을 만들어 농업기본법 개정을 위하여 이번 여름까지 10년 앞을 목표로 한 농업정책을 책정한다.

일본은 쌀, 계란, 육, 우유, 꿀의 과잉을 포함하여 야채가격의 불안정 등 문제가 산적해 있으며, 계란의 경우에도 補償기준가격이 인하되어 앞으로 회복될 전망이 흐리다.

農水省이 설치한 전문팀은

- ① 수급(需給)에 따른 생산 再編整備
- ② 농산물가격정책
- ③ 수입정책

# 축산업계 동향

④ 가공유통대책

⑤ 중핵농가육성 및 농지유통화 촉진등 구  
조개선대책

⑥ 농촌환경정비대책

⑦ 食管제도문제

중심이 되는 것은 쌀문제이며, 水田이용재  
편대책의 중심이 되는 수급 팀은 수전전작작  
목(水田轉作作目)을 어떻게 장려할 것인가를  
연구한다.

(수료자)

김창윤(서울계육)·박종식(서울계육)·조태화  
(신촌전업사)·이재풍(삼풍동물병원)·박성규  
(영육농산)·이덕수(사업)·이규범(합진물산)·  
강희일(수원도계장)·심재욱(영진식품)·이근우  
(신아산업사)·권병진(대전축협도계장)·한병재  
(별교도계장)·고재봉(삼진종합식품)·김만기  
(나주식품)·황현태(용인군청)

## 축산물 자체검사원 교육 실시

— 제 1기 가금처리검사원 15명수료 —

농촌진흥청 가축위생연구소(소장: 이창구)  
에서는 지난 3월 15일부터 5월 31일 까지  
축산물자체검사원에 대하여 가금처리검사, 수  
육가공검사, 유 및 유가공품검사에 관한 교  
육을 실시하였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령(78.6.  
13: 월간양계 78년도 7월호 참조) 자체검사  
원교육에 의해 실시된 이번 교육은 기별로  
15일간 1일 7시간씩 식품위생관리의 철저를  
위해 강의 및 실습을 실시하였다.

제 1기 축산물 자체검사원 가금처리검사반  
실시과목 및 수료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실시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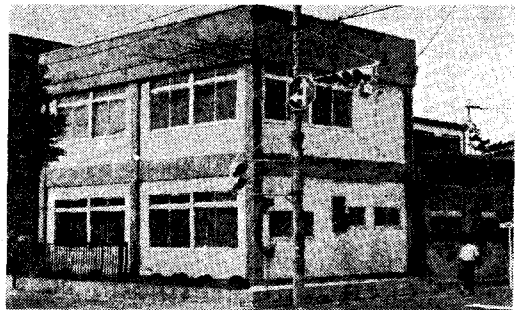
복부자세·축산물법규요설·도계검사의 중요  
성과 목적·도계검사를 위한 닭의 해부와 생리·  
닭의 일령별 질병별 검색상황·계육위생과 검사  
요령·가금질병과 예방·생체검사·사체검사 및  
실습·특수검사 및 당면문제·세균검사 및 실습·  
일반도계장의 시설기준과 해설·병성감정 요령및  
실습·품질관리·현장실습

## 일본 감별사양성소 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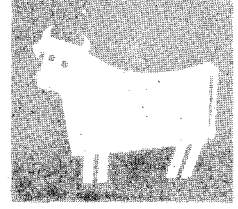
— 한국감별사와의 경쟁예상 —

일본 사단법인 全日本조생추감별협회는 일  
본 양계의 본고장인 名古屋市 瑞穂區 瑞穂通  
에 1,680만円(일화)의 공사비로 감별사양 성  
소를 신축준공 하였다.

동협회는 일본감별사의 해외취업 창구로써  
그간 일본 국내 임금이 높아 감별사 지망자  
가 적어 우리나라 감별사가 유리하게 구주방  
면으로 진출하였었으나 78년도부터 다시 일  
본국내 감별사 양성을 본격화 함으로써 우리  
나라 감별사와의 해외진출 경쟁이 예상 되고  
있다.



일본감별사 양성소



## 농협조사부 기능강화

### — 4개반 증설 1백 10명으로 증원 —

농수산부는 해마다 심화되고 있는 농촌일손부족과 각종 영농비 인상 등 전환기농정의 효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농협 조사부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6일 농협이 농수산부와 협의의 거처 마련한 편제 개편방안에 따르면 현재 6개반으로 구성된 조사부에 농지조사반·노동력조사반·농업기계조사반·국제경제조사반 등 4개반을 증설, 10개 반으로 늘리고 정원을 현행 55명에서 1백 10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농협은 조사부 기능강화에 따른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수당지급과 신규채용 직원의 우선 배치는 물론 학위 소지자의 특별 채용을 허용하고 해외연수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농협, 배합사료생산 늘려

### — 양축농가 위해 총 55만t으로 —

농협중앙회는 양축농가의 수익을 늘려주기 위해 올해 배합사료생산량을 당초계획보다 5만t을 늘려 총 55만t을 생산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축협산하 10개 회원 공장에서 22만t, 인천·부산 등 2개 직영공장에서 33만t을 생산하게 된다.

농협은 배합사료증산계획에 따라 양계사료 3만4천t, 양돈사료 1만t, 낙농사료 3천t, 농축사료 4천t 등 총 5만1천t을 증산하고 비교적 수요가 적은 비육우용 사료 1천t을 감산

하여 전체적으로 5만t을 증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합사료의 증산은 양축 농가의 사료부족을 해소하고 소득증대를 도모키 위한 것이다.

각공장별 증산계획량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t)

▲ 인천=10 ▲ 부산=10 ▲ 서울축협=5 ▲ 부천=5 ▲ 양주=4 ▲ 안양=2 ▲ 수원=3 ▲ 천안=2 ▲ 홍성=2 ▲ 보령=2 ▲ 광주=2 ▲ 대구=3

## 샤로레교잡육우 보급확대

### — 쇠고기증산에 도움, 경기도일원에—

경기도는 작년 8월부터 강화군에서 한우와 샤로레교잡사육에 착수 1대교잡종생산이 순조롭게 진행, 부족되는 쇠고기 증산에 큰 도움을 주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농촌진흥청, 농협 등과 함께 강화군 일원에 보급, 육질이 연하고 살코기 생산량이 많고 사료이용율이 높고 조숙성이며 성질이 온순하고 추위와 더위에 강하며 한우와 털색이 거의 같아 농민기호에 적합한 샤로레 교잡종소를 도전역에 보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샤로레 교잡종은 현재 강화군 일원에 8백 20여가구가 보급되어 당국은 이 소의 사육장려책으로 암송아지는 두당 30만원, 수송아지는 두당 20만원씩의 용자지원을 해주고 있다

# 축산업계 동향

## 乳牛群 능력검정사업 착수

### — 촉진, 고능력우 선발 확보위해 —

축산진흥회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유우군능력검정사업에 착수했다.

촉진에 따르면 국내젖소중 고능력우를 선발 확보하고 합리적인 사양관리로 낙농 경영수익을 높이기위해 우선 경기도와 충청도에 3개 검정소를 설치, 검정원을 배치하고 검정사업을 시작했는데 성빈우(24개월령 이상)를 10두 이상 사육하고 젖소개량과 낙농경영 개선에 의욕적인 시범목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검정항목은 산유량·유지율·사료급여량과 비용·체중과 체형·번식관계 등이다.

## 젖소도입계획 백지화

### — 농협, 국내 사육농가 보호위해 —

농협중앙회는 올해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외국산젖소 1천5백마리를 도입, 새마을 소득종합개발사업지구에 입식시키려던 계획을 백지화하고 전부 국산젖소로 대체입식시키기로 했다.

농협은 새마을소득 종합개발사업지구 관할 지역안에서 생산된 젖소가운데 생후 4개월이상된 우량젖소를 입식시키도록 하고 관할구역 안에서 젖소구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협 경기도 젖소목장에서 분양해주도록 했다.

농협은 이와함께 젖소구입자금 융자액을 종전의 마리당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농가입식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번 젖소도입계획의 백지화는 국내기업목장과 젖소사육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도별 입식마리수는 다음과 같다.(단위=마리)

▲강원: 160 ▲충북: 120 ▲충남: 250▲  
전북: 135 ▲전남: 380 ▲경북: 215 ▲경  
남: 200 ▲제주: 40

## 논에 사료작물 재배

### — 농협, 8월까지 3억5천만원보조 —

농협중앙회는 금년 가을 벼수확후에 총 3만ha에 담리작사료작물 재배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위해 총3억5천1백만원의 재배보조금을 8월말까지 지원해줄 계획이다.

농협은 젖소, 한우, 고깃소를 기르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3백평이상씩 사료 작물을 재배토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씨앗값을 ha당 1만1천7백원씩 총3만ha에 3억5천1백만원을 지원한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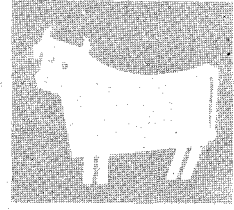
논뒷그루에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농가의 자급사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동시에 경지이용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농협은 사료작물로 담리작에 알맞는 호밀, 걸보리, 이탈리아인 라이그라스 등을 재배하도록 하되 비료는 ha당 6만6천7백80원어치를 전량 외상공급해줄 계획이다.

## 도입옥수수 야적된채 썩어

### — 비축시설부족으로 —

사료용 도입옥수수가 비축시설이 부족, 인



천향내에 야적된채 장마기를 맞아 썩어 가고 있다.

7월 12일 사료관계자들에 의하면 배합사료생산량 급증에 따라 주원료인 옥수수 비축물량확보를 위해 이를 대량도입하고 있으나 최근 축산불황으로 사료수요량이 격감, 생산공장에서 옥수수반입을 꺼리자 복두에 야적된채 썩고 있는 실정이다.

12일 현재 인천항 부두에는 10만여t의 옥수수가 야적되어 장마기를 맞아 비에 젖고 다시 뜨거운 열을 받음으로써 부패변질되고 있다.

이같은 옥수수 채화현상은 지난 연초 갑작스런 배합사료 수요량 격증에 따라 도입물량을 크게 확대했으나 축산불황에 따라 연초에 하루 소모량이 9천t이던 것이 요즘은 6천t에도 미달되고 있는 실정이며 각 배합사료공장들도 비축시설이 부족 충분한 물량을 보관할 수 없어 옥수수반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미 인천항에 도착된 3척분의 옥수수도 하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 브로일러수입

### 대폭으로 증가

— 전년대비 29.7% 증가 —

일본의 1978년도(1~12월)의 牛, 豚, 계육, 馬, 羊의 식육(食肉)과 액란(液卵)의 수입상황이 발표되었다.

발표에 따르면 식육은 豚과 羊을 제외하곤 대폭 증가했으며 특히 브로일러는 5만9천 8

백 13톤으로 전년대비 29.7%나 되었다.

수입브로일러중 태국산이 9천 9백 59톤으로 전년대비 2.3배이며 중공산도 8천 6백 62톤으로 전년대비 182.9%나 되었다.

액란은 전체로서는 전년과 같았지만 卵白은 거의 倍增하였으며 그 비율만큼 凍結卵, 卵黃이 감소됐다.

우육은 약 10만톤으로 전년대비 18.4% 증, 馬肉은 6만 2천톤으로 20.5% 증가하였다. 식육 전체로는 46만 4천 6백 82톤인 5.5% 증가되었다.

## 호주 쇠고기판매카르텔 반대

### — 규제벗어난 자유거래 고수 —

호주정부는 쇠고기 생산업자들의 카르텔형성 가능성을 배제, 쇠고기의 자유거래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주한호주대사관은 「호주정부는 주요 쇠고기생산 국가의 카르텔형성에 대해 전혀 고려한바 없으며 가능한한 수출입국가를 막론하고 어떠한 규제에서 벗어난 자유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농수산부당국에 전했다.

또한 최근 수개월간에 걸쳐 쇠고기값이 대폭 인상되었으며 호주산 쇠고기값은 현재 일년전보다 70%가 올랐으나 호주는 최근 도살두수가 감소추세를 보여 비육우 보유두수가 안정세를 이루게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호주는 한국의 우육시장에 많은 중요성을 두고 있다고 강조, 쇠고기 對韓수출고를 계속 지속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축산업계 동향

## 동경라운드 타결

### - 농산물은 계속 교섭 -

1973년의 동경라운드(관세무역 일반 협정) 각료회의 교섭개시로 부터 5년 반만에 타결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 무역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게 되었다.

동경라운드는 이전의 케네디라운드와 달라 관세인하만으로 그치지 않고 관세 이외의 무역장벽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약을 정하고 있다.

대상 품목은 거의 모든 무역 품목에 이르며 특히 정부조달 물자와 농산물에 대하여는 美·일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다음으로 교섭을 미루었다.

### - 농업관계의 협정 규약 -

주요 선진국에서 실질타결을 확인한 문서 가운데 「국제 낙농품 협정」 「국제식육협정」 「농업분야의 협의 규약에 관한 권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국제낙농품 협정」

우유 및 낙농품에 있어서 공정한 가격수준을 유지하고 국제협력 개선을 통하여 가능한 한 안정된 조건하에서 세계무역 확대 및 자유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협정에 따라 조약국은 우유 및 낙농품의 세계적인 과잉생산과 그 과당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에 공헌할 수 있고 국제 낙농품 이사회를 통해 관련 정보의 입수 시장현황과 전망의 검토 등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 「국제식육 협정」

국제협력증대를 통하여 국제식육시장의 확대보다 더 자유화와 안정화를 이루고 세계시장 확대를 위하여 가격의 장기안정을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협정국은 대상 상품의 생산 소비 가격 재고 및 무역에 있어서 과거의 실적 현황 및 전망, 국내정책 무역조치 二國간 약속 등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

국제 식육이사회는 제공된 정보 등에 기초하여 세계의 수급사정 및 전망을 평가한다. 이사회는 시장에 중대한 불균형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의 고려로 GATT의 원칙과 규정에 따라 가능한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조약국은 협정목적 및 가트의 원칙에 따라 세계무역의 장해를 제거할 가능성을 연구할 토의를 행한다. 이 토의는 가트의 규정과 원칙에 따라 장래의 무역문제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을 검토할 기초를 마련한다.

조약국은 협정에 영향을 끼칠 문제를 이사회에 제의할 수가 있다. 국제식육 이사회는 가트(GATT)의 규정내에서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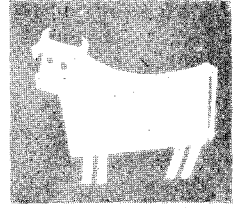
이 협정에 따라 조약국은 국제식육 이사회를 통하여 관련 정보의 입수 시황(市況) 및 전망의 검토 등에 참가할 수 있으며 국제 협력을 통하여 쇠고기 국제무역의 건전한 발전에 공헌하게 된다.

## 한국바이오테크 축산장학생

### 선발요강 발표

한국바이오테크(주) (대표: 김길원) 에





서는 예년에 이어 금번 79년도 후기 바이엘 축산장학생을 선발한다.

선발대상은 전국 농, 축산계대학 축산, 수의학과 재학생으로 학업성적이 평균 B 학점 이상이고 품행이 단정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로 해당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접수하며 개별서류 심사후 10명 이상을 선발하여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사 총무부(66 : 2481 ~4, 5152~4)에 문의하기 바람.

## 사료용 도입곡류 체화

—배합사료공장 판매량도 위축—

금년 1/4 분기에는 예측을 불허한 배합사료의 물량증가 추세를 보여 당초수급계획330만톤이 430만톤으로 변경된바 있으나 근간 배합사료 판매량이 약20%가량 하락 되고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대단위 배합사료공장이 가동됨에 따른 판매처 경쟁과 하절기 사료공급의 둔화현상이 있는데다 금년도 축산업 면세혜택종료로 인한 감산현상마저 가증되어 일부 배합사료 공장에서는 30~40%가량 감산하고 있다한다.

이로인해 사료용 도입곡류가 약 40만톤 가량 체화되어 각 부두마다 장관을 이루고 있다는데 이에 따라 관계당국은 사료용 도입곡류 인수 촉구를 위해 전력 투구하고 있다고 한다.

## 비육·착유사료에 콩기름 첨가하면 사료효율 증진

—미국, Dixon Lee 교수

연구보고에서 밝혀—

미국 Southern Illinois대학, Dixon Lee교수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비육 또는 착유사료의 에너지원으로 식용콩기름을 배합한 결과 쇠고기 및 우유생산의 사료효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

Dixon교수는 이 연구에서 Steers배육사료에 옥수수 대체를 목적으로 콩기름을 3%에서 9%까지 혼합 급여한 결과 콩기름 3% 배합수준에서의 육우체중 1kg 증체당 사료섭취량이 10.4kg이었는데 반해 콩기름을 배합하지 않은 대조구의 경우는 12.4kg 이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낙농용 착유사료에 콩기름을 각각 2%와 4% 배합한 결과 대조구의 두당 일당 건물 섭취량이 16.6kg이었는데 반해 콩기름 2% 배합의 경우는 16.0kg 그리고 4%의 경우는 15.3kg이었으며 이들 각 사료를 급여한 시험구별 두당 평균 일당 우유 생산량을 보면 2%의 경우가 20.3kg, 4%의 경우가 20.8kg으로 대조구의 19.8kg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착유사료에 콩기름을 첨가 하였을 경우의 유지율은 대조구에 비해 낮은경향을 보였다.

## 적정량의 Cholesterol 섭취

건강유지위해 꼭 필요해

—생존을 위한 필수영양소—

영양백과(Everything You Always Wanted

# 축산업계 동향

to Know about Nutrition)의 저자인 미국의 David Rueden박사는 Cholesterol이 사람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영양소라 강조하고 있다. 즉 Cholesterol은 사람의 체조직 특히 뇌조직, 신경조직, 척수 및 혈액에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David박사의 보고에 의하면 미국인 한사람이 하루에 섭취하는 Cholesterol은 평균600mg인 바 이중 약 반이 흡수된다고 한다. 그리고 인체내에서 하루에 1,000mg의 Cholesterol이 합성된다고 한다. 이러한 Cholesterol은 필수영양소이기 때문에 적게 섭취하여 부족하게 되면 체내에서 더 많은 양을 합성하며 많이 섭취하면 적은량을 합성한다고 한다. 따라서 미국인이 현재 평균적으로 섭취하고 있는 Cholesterol(일당 600mg)은 고혈압이나 심장마비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현대과학이 증명한 내용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David박사는 건강하기를 원하면 Cholesterol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라고 권장하고 있으며 만일 Cholesterol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음식만을 섭취하는 것을 계속하면 급기야는 죽게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에서 Cholesterol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계란 한개에 들어있는 Cholesterol은 252mg이다. 따라서 한사람이 하루에 2개 내지 3개 정도의 계란을 섭취해도 무방하다는 결론이 된다.

## 동방화학 순회세미나 개최예정

동방화학(대표: 이각모)에서는 8월 7일부

터 CRD와 CCRD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순회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국 업존회사와 손을 잡고 있는 동사는 업존 기술부장 Dr. Langford를 초빙, 링크스펙틴-100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일정은 아래와 같다.

(대구) 8월 7일(火)오후 2시 동원예식장  
(문의처) 30-05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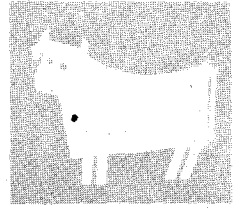
(부산) 8월 8일(水)오후 2시 금탑예식장  
(문의처) 68-1980

## 부국사료 안양직매장 개설

— 안양지역 양축가 서비스위해 —

부국사료(주)(대표: 한호섭)는 안양지역 양축가 서비스를 위해 지난 7월 24일 안양시 안양 4동 690번지에 부국사료 안양연락사무





소 및 직매장을 개설했다.

연락사무소 소장에는 송유호씨가 기용됐으며 전화번호는 (안양) 2-1888

### 바이엘, 양돈질병 슬라이드 제작

한국바이엘화학<주> (대표: 김길원)에서는 일선양축가에게 가축질병의 올바른 지식과 적절한 예방대책의 요령을 보급시킬 목적으로 “백지의 질병” 슬라이드(78cut)를 제작하여 영업부 산하 전국 지방출장소에 배포하였다.

그룹세미나를 원하는 대단위 농장이나 양돈단지 실무자는 동사 영업부나 해당 지방출장소에 신청하면 세미나 강습을 받을수 있다.

### 업계 단신

◇ 한호섭(부국사료<주> 대표) : 새로운 공장시설확충과 최신식 컴퓨터시스템 도입에 따른 사전조사를 위해 대만,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미국사료업계 견학을 위해 김대성 기획부장과 지난 7월 17일 출국



(한 호 섭)

◇ 김종상(한국화이자 농축부장) : 미국 화이자 본사에 6개월간 연수차 지난 7월12일 출국.

◇ 유한양행<주>(대표: 조권순) : 6월 20일 창립 53주년을 맞아 10년이상 근속자표창 및 기념식을 가졌다.

◇ 김종완(전 현대상사전무) : 계사·돈사시설비공사를 위해 현대축산건축상사 개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독산2동 399-57 ☎ (855) 2505

◇ 전동수(한국단미사료협회회장) : 일본의 어분 제조시설 견학차 7월26일 출국.

### 이 전

○ 대한제당<주>(대표: 민중기) :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194-15(인송빌딩 11층) 토 사무실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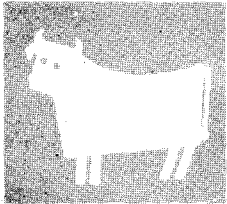
☎ 사 장 실 : 776-6242  
전 무 실 : 776-6243  
기획업무담당상무실 : 776-6261  
관리담당이사 : 776-6050  
업무담당이사 : 776-6190  
사료구매·영업부 : 778-8257

○ 김포계우회(회장: 기세중) : 김포읍 북변리 341번지(경찰서옆)로 이전.

☎ (김포) 108번

○ 새마을신문사(대표: 위상욱)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8I-11(외국인학교 건너편)로 이전.

# 축산업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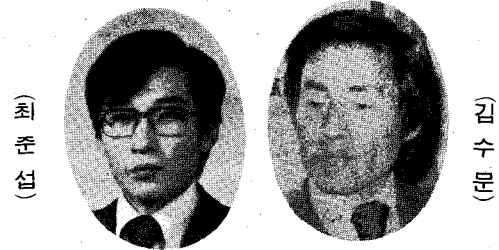


☎ (사장실·총무부) 35-3047  
 (편 집국) 35-3048  
 (업무국) 35-3049

◎ 서림부화장(대표: 구 은) : 농장장에 이윤식(전 한일농원 육종농장) 씨를 기용.  
 ◎ 세원농산(대표: 고병환) : 축산부에 최준섭(전대 축산과졸) 씨와 김정은(전대 축산과졸) 씨를 특채.

## 전화번호 변경

◆ 대홍사료(대표: 강대준) : 7월 20일부터 부산 (93) 4391~4로 전화번호 변경.  
 ◆ 경상사료(대표: 강성배) : (33) 0511~4로 변경.  
 ◆ 형제농장(대표: 손기정) : 전화신설(양평) 27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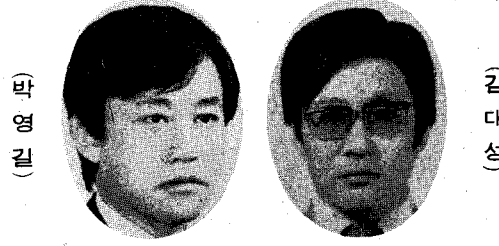
(최준섭)

(김수문)

◎ 양북개발물산(대표: 김종수) : 영업부장에 김수문(전 한국화이자 농축부) 씨를 기용.  
 ◎ 부국사료<주>(대표: 한호섭) : 영업이사에 안학원씨, 총무이사에 박영길씨가 취임하고 기획부장에 김대성(서울농대. 축산과졸) 씨를 기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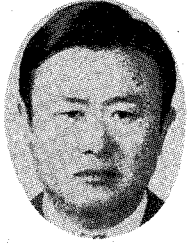
## 업계 인사

◎ 농수산부 : 축산국장에 지설하(전 축산시험장장) 씨, 축산시험장장에 김강식(전 축산국장) 씨가 전보 발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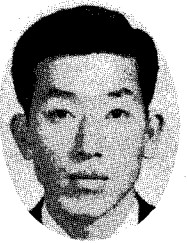


(박영길)

(김대성)



(지설하축산국장)



(김강식축산시험장장)

◎ 중앙약품(대표: 김무진) : 기획·총무과장에 김봉진(중앙대 경제과졸 전 태광교역총무·무역과장) 씨를 기용.  
 ◎ 한국바이엘화학<주>(대표: 김길원) : 김혜령(전대 낙농과졸) 씨를 개발부에 특채.  
 ◎ 기륭농원(대표: 이형성) : 농장장에 조성남(전 대한양계협회 기획부장) 씨를 기용.